전주대 경기지도학과, 태권도공연 통해 공헌 활동

전주대학교 경기지도학과가 태권도공연을 통해 전북 도민들에게 우리 전통 무술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공연 수익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태권도진흥재단의 '2021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단 지원사업'에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 세계태권도한마당 태권도시범대회에 우승한 작품 'the fire fighters'을 고도화시켜 50분 분량의 극장판 태권도공연을 진행했다.

특히 2014년부터 매년 태권도 졸업공연을 8년째 이어가며 태권도공연특화 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연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이숙경 교수는 "국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전북형 태권도 브랜드 공연'을 명품공연으로 상설화하여, 자생력을 갖춘 학과로 변모했으며, 이제는 태권도공연 산업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면서, "완성도 높은 공연을 통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the fire fighters' 공연은 12월 11일 11:00, 15:00, 졸업작품'2021 애록고지'는 18일 11:00, 15:00 전주대학교 예술관에서 각각 진행된다.

공연 참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20-3255)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에 감사패 수여

전주시, 서양열 전 금암노인복지관장 · 최재훈 전 효자시니어클럽관장

전주시는 지난 29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공헌해온 서양열 전 전주금암노인복지관장과 최재훈 전 전주효자시니어클럽관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난 2005년부터 금암노인복지관장을 역임해온 서양열 관장은 노인 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전국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3회 연속 취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이바지하고, ▲실버마당 운영 ▲농촌 프로그램 지원 ▲신노년문화운동 전개 ▲실버문화축제 개최 ▲전라북도 11개 노인복지관과 컨소시엄 구축 등 선도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에 힘써왔다. 또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의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

서 관장은 지난달 말 금암노인복지관장을 퇴임한 뒤 지난 11월 1일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효자시니어클럽에 재임해온 최재훈 관장은 지역의 색깔을 담아낸 특색 있는 노인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09년 효자시니어클럽 실장으로 일할 당시에는 '한옥마을 주막 천년누리봄'을 개업해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제1회 창업모델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우정청과 협약으로 '노는 우리 협동조합 카페우정'을 설립해 3호점 개점을 앞두고 있다. 특히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의 정착을 돕는 등 전주시 사업에 적극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니어클럽 연합회장으로서도 리더십을 보여준 최 관장은 지난달 말 효자시니어클럽관장을 퇴임한 뒤 11월 1일자로 금암노인복지관장으로 취임했다.

/김윤상기자

금임2동 주민자치위 · 통우회, 사랑의 김장 봉사

전주시 금임2동주민센터(동장 송상율)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태익)와 통우회(회장 전선옥)가 주관하고 금암MG새마을금고가 후원하는 '지역주민 사랑의 손맛 가득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임2동 자생단체 연합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절임배추 700kg를 직접 버무리고 포장해 독거어르신과 거동불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관내 취약계층 150여세대에 전달했다.

특히 전북도의회 최찬욱의원, 전주시의회 강동화의장, 박선전의원, 김호성의원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태익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된 이웃들은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한마음 모아 의미있는 나눔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사협 감사패 수상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학과장 김은주)가 대한작업치료사협회로부터 전라북도 작업치료사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작업치료학과가 전북 지역 노인과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낙상 방지 프로그램 방문 사업을 시행해 지역사회 작업치료의 선구적인 임무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은주 학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작업치료가 담당할 다양한 역할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작업치료학과는 2018년 상반기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 교육과정 인증과 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의 최우수 교육인증대학으로 선정, 전국 4년제 대학 최초로 국내외 작업치료 관련 교육 인증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 신흥중,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후원금 전달

전주 신흥중학교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박경노)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소정의 금액을 더하여 장애인학생 4명에게 각 30만원의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전달된 후원금은 신흥중학교 학생회가 빼빼로 판매 행사를 갖고 마련된 것으로, 학생회는 70만3천원의 판매 수익금을 후원했다.

신흥중 학생회는 "뜻깊은 일을 하고자 빼빼로 판매 행사를 한 후 후원처를 물색하던 중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임을 알고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에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업은 물론 지체장애인 등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경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한 신흥중학교 학생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달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 전북지부, 사랑의 연탄 나눔

전주시 노송동(동장 심규언)은 지난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지부(지부장 노동식)로부터 연탄 2000장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연탄 나눔은 코로나로 위축된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따뜻한 겨울나기 응원을 위해 기획됐으며, 기탁받은 연탄은 관내 독거노인 등 난방취약가구에 전달됐다.

연탄을 받은 송 모 할아버지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연탄을 아껴 쓰고 있었는데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노동식 지부장은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닿아 기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 조성

남원시는 은퇴자들이 모여 다양한 목공예품을 제작하고 판매까지 하는 '남자의 헛간(Men's Shed)'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노암동 함파우에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 '함파우 실버 wood 작업공간'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도비와 시비 등 총 4억원을 투입, 노암동 함파우 지방공원 조성예정지 부근에 각종 장비들이 갖추어진 60평 규모의 작업공간 2호점이 시설한다.

은퇴자들은 이곳에서 책상, 의자, 벤치, 수납장, 가구 등을 제작, 여가·취미생활은 물론 창업활동 등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남원시는 지난 2018년, 도내 최초로 '남자의 헛간(Men's Shed)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산내면 입석리에 '木金土 만물 목공작업 공간'을 조성한 바 있으며, 3년간에 걸쳐 500여명의 은퇴자들이 목공 및 용접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가구와 소품을 제작 판매하는 등 제2의 인생을 창업으로 이어가면서 지역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남자의 헛간(Men's Shed)'은 공동작업장에 개인이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기계나 대형장비를 갖추고 은퇴한 남성들이 취미생활을 즐기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시설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북교회 노인대학, 성금 100만원 기탁

남원시 동충동(동장 김은영)은 남원동북교회 부설 동북노인대학(회장 윤병환)에서 지난 26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100만원을 기탁해 왔다고 30일 밝혔다.

윤병환 회장은 "작은 성금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여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은영 동장은 성금을 기탁해준 남원동북노인대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큰 뜻을 받들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복지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비전대, 현장 채용 연계캠프 운영

전주비전대학교(총장대행 문용규)가 최근 전주 왕의지밀 호텔에서 미취업자 11명을 대상으로 'good job' 현장 채용 연계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박2일 진행됐다.

이번 연계캠프는 기업들의 채용경향을 살펴보고 기업분석 방법을 익혀 취업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학생 인성과 역량', '직무 중심 자소서 작성', 그리고 '면접컨설팅'으로 구성됐다.

캠프에 참여한 김수민 학생(사회복지경영과)은 "취업에 대한 막연함으로 답답했는데 캠프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기회를 갖게 됐고,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심훈 취업지원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취업시장 환경에서 이번 취업캠프가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 확신하고 앞으로도 전주비전대만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중화산1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전주시 중화산1동 주민센터(동장 유은례)는 겨울철을 맞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김장김치 나눔봉사에는 중화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지은숙)을 비롯, 통장협의회(회장 변은숙) 및 자생단체 회원 등 약 20여명이 참여해 정성껏 김치 500포기를 감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관내 취약가구 80세대에게 전달했다.

지은숙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장나눔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강화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 아동센터 3곳에 제빵 나눔

전주시 효자2동(동장 김혜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수옥)는 지난 29일 관내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3개소에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는 "제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원 20여 명과 대한적십자사 효자2동 봉사회(회장 최봉만) 회원들이 참여해 아이들을 위한 빵을 만들면서 코로나 19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도 했다.

새마을부녀회 박수옥 회장은 "20여 명의 부녀회 회원들 여럿이 모여 뜻깊은 일을 하니 힐링도 되고 사랑을 가득 담아 정성껏 만든 빵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니 보람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대상들을 찾아 사랑을 실천하는 새마을부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효자2동 김혜숙 동장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 때 아이들을 위해 선뜻 나눔에 동참해주신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진안군, 농업발전 위한 군민 의견 수렴

진안군은 지난 30일 농업·축산 관련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농촌경제분과를 중심으로 '홍삼 및 농축산유통분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관련 분야 군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3개분과 20명으로 구성됐다.

그 중 농촌경제분과는 지역경제, 에너지, 농업, 축산, 산림, 농촌개발, 농산물유통, 로컬푸드 등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 제안과 관련 사업 및 시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자문회의는 진안군 농축산유통과의 주관하에 개최됐으며, '홍삼?한방분야 산업 활성화'와 '농특산물의 온·오프라인 유통판매 및 통합마케팅 추진 발전 방향' 등의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농축산유통과 주요업무 보고, 분과위원 정책제안 설명, 그밖에 개선 방향 및 아이디어 의견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촌경제분과 위원들과 농축산유통분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